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F1 영국 그랑프리 생중계! F1의 성지, 지금껏 본 적 없는 장면들 최초 공개

2025. 7. 1.

쿠팡플레이가 '2025 FIA 포뮬러 원 월드 챔피언십' 영국 그랑프리 프리뷰 쇼를 통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 **쿠팡플레이, 국내 최초 F1 실버스톤 현장 생중계 7월 4일(금) 영국 그랑프리 풀 패키지 제공**
- **영국 현지에서 프리뷰 쇼·한세용 인터뷰·피렐리 핫랩까지! 다채로운 콘텐츠로 F1 팬심 저격 다채로운 콘텐츠 마련**
- **올해 5개 그랑프리 현장 직접 중계·리포팅하는 쿠팡플레이 휴식기엔 스페셜 콘텐츠로 연결**

2025. 07. 01. - 쿠팡플레이가 '2025 FIA 포뮬러 원 월드 챔피언십(F1)' 영국 그랑프리를 국내 최초로 현장에서 풀 패키지로 생중계하며, 실버스톤 서킷의 뜨거운 열기와 현장 분위기를 그대로 전한다.

이번 영국 그랑프리는 루이스 해밀턴의 페라리 이적 후 첫 홈 경기이자, 'F1의 성지' 실버스톤에서 열리는 대회로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상승세를 이어가는 맥라렌, 반등을 노리는 레드불, 중위권 팀들의 포디엄 경쟁까지 더해져 시즌 순위 싸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쿠팡플레이는 프랙티스부터 퀄리파잉, 본 레이스까지 전 세션을 생중계하는 풀 패키지를 제공한다. ▲4일(금) 오후 8시 15분 프랙티스 1·2 ▲5일(토) 오후 7시 15분 프랙티스 3과 오후 10시 퀄리파잉 ▲6일(일) 오후 10시 본 레이스까지 현장의 열기를 생생하게

전한다.

coupang play
쿠팡플레이 생중계
F1 영국 그랑프리
프랙티스 1 7/4 (금) 오후 8:15
프랙티스 2 7/4 (금) 오후 11:45
프랙티스 3 7/5 (토) 오후 7:15

coupang play
쿠팡플레이 생중계
F1 영국 그랑프리
퀄리파잉 7/5 (토) 오후 10:00
레이스 7/6 (일) 오후 10:00

쿠팡플레이가 '2025 FIA 포뮬러 원 월드 챔피언십' 영국 그랑프리를 국내 최초로 현장 생중계한다.

쿠팡플레이는 이번 영국 그랑프리를 오직 현지에서만 구현 가능한 독보적인 F1 콘텐츠와 함께 선보인다. 퀄리파잉과 본 레이스 1시간 전에는 윤재수 해설위원과 안형진 캐스터가 함께하는 프리뷰 쇼가 진행되며, 팀별 전략 분석과 관전 포인트를 소개하면서서 중계의 깊이를 더할뿐만 아니라, 팬들에게 한층 풍부한 시청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윤재수 해설위원은 피렐리 핫랩 차량에 탑승해 전문가의 시선으로 F1 레이싱의 속도감과 코너링을 체감하는 특별 콘텐츠도 선보이며, 현장 중계의 몰입감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트랙 워킹, 윌리엄스 레이싱 팀 본진 방문, 공기역학팀 리더 김효원 박사와 여성 드라이버이자 에스턴 마틴 앰배서더 제시카 호킨스와의 인터뷰 등 다양한 현장 콘텐츠가 마련된다. 진세민 아나운서도 현장에 투입돼, 패독, 미디어존, 팬존의 열기와 드라이버들의 반응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계 최초로 F1 무대에 데뷔한 한세용 선수와의 인터뷰도 진행된다. 한세용은 한국인 어머니와 영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계 영국 드라이버로, 2015년 포뮬러 르노 2.0 알프스 시리즈 종합 우승을 거쳐 2018년 F2에 데뷔했으며 2020년에는 윌리엄스 팀의 리저브 드라이버로 F1 무대에 올랐다.

윤재수 해설위원은 **"실버스톤은 모든 드라이버들이 손꼽는 특별한 트랙이자, F1의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서킷"**이라며, **"수많은 전략과 드라마가 교차할 이번 경기에서 쿠팡플레이의 현장 중계는 더욱 몰입도 높은 시청 경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쿠팡플레이는 일본과 영국을 포함해, 2025 시즌 총 5개 그랑프리의 현장을 직접 찾아 생중계 및 리포팅을 진행한다. 시즌 후반에는 싱가포르 그랑프리를 현지에서 생중계하고, 시즌 마지막 대회인 아부다비 그랑프리에서는 현장 리포팅을 통해 레이스의 피날레를 전달할 예정이다. 여름 휴식기 동안에는 F1 전문과와 함께 만드는 특별 콘텐츠도 공개할 계획이다.

2025 시즌 F1 전 경기 생중계 및 하이라이트는 쿠팡플레이의 '스포츠 패스'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